

靑 “연락사무소 폭파 유감 상황 악화 시 강력 대응”

국방부 “24시간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청와대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와 관련,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며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오후 2시49분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우리 감시자산으로 확인한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해 상황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과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형 기자

군, ‘K-수소경제’ 육성 적극 동참

국방부·산업부·환경부·현대차 등 업무협약

자운대 민·군 겸용 충전소 설치
수소버스 등 5대 추가 구매
군용지 충전소 부지 적극 발굴키로

국방부가 미래 대표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수소경제 육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 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현대자동차,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과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는 국방부를 대표해 박재민 차관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협약과 함께 자운대에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도 공개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토지사용허가 등 인허가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전국에 39곳밖에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대전지역에는 단 한 곳밖에 없는 데다 1대당 충전시간이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소자동차가 다니기 더욱 힘든 상황이다. 자운대에 들어서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가 더욱 반가운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대전지역에는 총 285대의 수소차가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250대가량이 추가 보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운대 수소충전소가 준공되면 앞으로 수소차 증가에 따른 충전수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16일 자운대를 방문한 정세균(앞줄 오른쪽 둘째) 국무총리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전시된 무인기와 드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경원 기자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수소차 SUV 5대를 구매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국직부대에 1대씩 배치해 운행하고 있다. 또 내년까지 수소버스를 포함해 총 5대를 추가 구매해 수소충전소 예정부지인 자운대에 배치하고 앞으로 점차 수소차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자운대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관한 심의 등을 거쳐 자운대 입구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제도·정책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또 앞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국방부 소유 군용지

가운데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적극 발굴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는 국방부와 환경부로부터 수소경제 육성 관련 업무추진 경과와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조감도, 주요 재원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정 총리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과 함께 쓸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의 결심이 대한민국의 수소 선진국으로 가는 데 큰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군에 큰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4면에 계속

맹수열 기자

■ 편집=김노형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강함국군

CRM센터 ☎1600-3705



☞ 헌혈 30회 이상 참여 헌혈홍보대사 김승현

☞ 헌혈 70회 이상 참여 헌혈홍보대사 박재민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